

‘일상회복·선도국가’ 4대 과제 제시

문 대통령 신년사 뭉치

“집값 하향안정” 강조...야 “자화자찬” 코로나19 극복·포용사회 대전환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선도국가로 나아가 갈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문재인 정부의 4대 과제를 소개하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없이는 다른 분야의 정상화도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

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일상회복을 통해 선도국가 진입과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회복 등 민생 안정이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확인한 것이다.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도 경제(15회)였다. 위기(11회)와 회복(8회)도 자주 눈에 띄었다.

특히 현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하락세를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며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완인 평화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진전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임기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취임 후 지난 5년간 이룬 성과를 빼곡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어 전진해왔다”면서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제성장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과 맞물려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공은 공대로 인정받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분배 지표 개선 등을 두고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저소

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고자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고 한 대목 등은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반박하는 의미로도 읽힌다.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한 국민에게 그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자화자찬”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지막까지도 문 대통령은 허무맹랑한 소신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5년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자화자찬, 단 세상 인식이 마지막 신년사까지도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권력기관이 더는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허경영 기자회견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당, 김동연 지지선언 미래당은 3일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사무실에서 김동연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김종인-김기현 대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지도부 3인 선대위 사퇴

김기현·김도읍 “무한책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일 공동선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을 전격 사퇴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3인방’도 선대위직과 당직에서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남 탓할 일 아니고 내 탓이라 생각하고 원내대표인 저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서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완전히 쇄신해서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새출발하는 각오를

다져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의총 공개 발언을 통해 “지금 이 상황에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며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위의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국민이 국민의힘에 정권교체하라고 명령했는데 저희는 내부 문제로 국민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수석부대표직과 선대위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3인방이 사퇴함에 따라 사실상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 39.4% vs 윤 29.9%...9%p대 격차

리얼미터·KSOI·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잇따라 나왔다.

일부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일부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 9%포인트대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들어 발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윤 후보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라 윤 후보 측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20~30대 젊은 층에서 윤 후보와 접전을 벌이거나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부 조사에서 다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40.9%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전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39.2%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 ±1.8%포인트) 내인 1.7%포인트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6%,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3.6%, 윤 후보의 지지율은 28%를 기록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 후보는 전주보다 3.3%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6.6%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0.4%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라 56.1%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8%, 민주당 34.2%, 국민의당 7.9% 순이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4%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전주보다 1.5%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이재명, 오늘 신년회전...주 1회 정책 행진 시동

“위기 극복·희망 상징” 회견장소 기아공장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사진)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행보를 통한 ‘굳히기’에 시동을 건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기후변화와 감염병 위기,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명의 기아자동차 공장을 첫 기자회견 장소로 선정한 데에서도 이 후보의 강조점이 드러난다.

자동차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이자, 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전환기를 맞아 혁신이나 도태냐의 갈림길에 선 업종이다.

선대위 권혁기 대변인은 3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기아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의 희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장소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대전환기의 경제 성장 방향과 이를 위한 국가의 대대적 투



자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쇄신 메시지와 함께 정책의 저작권을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 인재를 선발해 실용·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메시지도 회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는 ‘위기 극복과 희망’이라는 화두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후 각론 격의 구체적 정책은 속도감 있게 연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화두를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오는 6일 별도의 정책 공약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한 주에 한 번 이상의 정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6일에는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리고 묶는 식으로 ‘메가 공약’을 내놓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도 준비 중이지만, 발표는 내주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도심 재개발 용적률 등 규제 완화와 공급 부지 확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유분 강화유 나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국산 원유 함유

베지밀

영양가 2배 강화 시니어두유

Smoothie for Senior Citizens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엔
- 필수 단백질 효능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 주된 체 1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4월 트러스트 www.edaymail.com 1 문의 고객센터 080-80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동부영양소 (02)552-4387 ● 부산영양소 (02)589-3182 ● 남부영양소 (02)829-4535 ● 강원영양소 (02)829-4999 ● 충청영양소 (02)829-2202 ● 인천영양소 (02)829-4208 ● 광주영양소 (02)829-4901 ● 충청영양소 (02)829-4901 ● 전북영양소 (02)829-4901 ● 경북영양소 (02)829-4901 ● 경남영양소 (02)829-4901 ● 제주영양소 (02)829-4901 ● 강원영양소 (02)829-4901 ● 충청영양소 (02)829-4901 ● 인천영양소 (02)829-4901 ● 광주영양소 (02)829-4901 ● 전북영양소 (02)829-4901 ● 경북영양소 (02)829-4901 ● 경남영양소 (02)829-4901 ● 제주영양소 (02)829-4901